

장애 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정계숙(Kai Sook Chung)¹⁾박명화(Myung Hwa Park)²⁾노진형(Jin Hyung Roh)³⁾

ABSTRACT

The study examined some stat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levant research and education, and welfare policies undertaken for the last three decades. The changed perceptions regar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led education and legislation to great improvement. As a result,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registered as having disabilities has been increased. Also, children who received any benefits of education and welfare have been consistently risen. The noticeable features of the existing stud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An increase in number, a variety of the contents, specification of the topics, and a close connection to the basic studies. In spite of the progression and improvement observed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welfare policy making, more practical approaches are needed in order to reflect various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 장애아동의 현황(current statu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연구쟁점 (research issues), 실제적, 정책적 이슈(pragmatic & policy issues).

I. 서 론

1. 장애 아동의 현황

20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가 시작되었

다. 1990년도에는 24만명 정도에 불과하던 등록 장애인은 18년 만에 8.5배로 증가하여 2008년 12월에는 22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이는 1997년 이후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¹⁾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³⁾ 부산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소 특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in Hyung Roh, Early Childhood Educare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E-mail : michiaa@hanmail.net

개선 및 IMF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연차적인 장애법주의 확대 역시 장애 등록율을 높이는 한 원인이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0년부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왔고 2007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3년 주기로 바뀌어 2008년에 제7차 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로 표본조사만 수용되었다. 제 7차 조사결과를 보면 0-17세의 장애아동 전체의 73%정도가 2003년-2008년 사이에 장애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1/4분기) 전체 등록장애인 213만명 중 3.9%정도가 이 연령대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의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반면 교육인적기술부의 특수교육 요구 학생에 대한 조사는 1998년에 처음 이루어져 특수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영역만이 조사되었으나, 2005년 건장장애, 2006년 의사소통장애가 추가 조사되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도 ‘발달지체’로서 무상 및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2009년부터 발달지체가 조사영역에 포함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서비스 강화로 2009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75,187명으로 1998년의 48,51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영역별로 보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정신지체의 비중이 가장 높아 2009년도 전체의 54%인 40,601s

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통계자료(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령인구 대비 특수교육대상 비율은 0.99%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교육기술과학부, 2009, 재인용).

특수교육 담당교원은 1998년 6,143명에서 2009년 13,99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1인당 학생수가 7.9명에서 5.4명으로 감소하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이 학생 4명당 교사 1명 배치를 규정되어 있어 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의 경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이후 51개교에서 1999년 118개, 2009년 150개로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350여개에 불과하던 특수학급은 각각 3,728개와 6,92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 2004년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57.1%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68.3%로 증가하였다. 장애아 보육시설 역시 2003년 291개에서 2008년 916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한 영유아는 2001년 2,301명, 2008년 6,068명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나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2001년 841명에서 2008년 3,518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여 장애영유아 통합보육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08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08)에 의하면 특수교육 요구학생은 학령인구의 0.95%인 89,051명으로 나타났다. 취학학생은 77,764명으로 이 중 6,280명은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하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특수교육이 필요하지만 취학(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11,28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학생들 중 73.3%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어떤 취학 경험도 없었으며 56.5%는 특수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장애아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과 가족 복지·교육정책 현황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장애인 복지 향상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고(허경하, 2002),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의 개최로 장애인 문제를 사회 환경적 문제로 인식하여 제도 변혁을 위한 노력이 시도됨에 따라(김윤정, 1997)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 끝남에 따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사회통합’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었다.

1990년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c).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 1999 및 2007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1989년 개정시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등록제 실시, 장애인의 정보접근법,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 및 보급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신설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보급되는 등 경제적 지원과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아동에게는 1991년부터 장애 발생 위험을 사

전에 발견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1997년부터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는 생후 2개월에서 만 6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마비 등의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다(조추용·오정옥·한성심·이채식, 2006).

2000년대 장애인 복지정책은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 발전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 복지사업을 총망라하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1차(1998~2002), 2차(2003~2007) 및 3차(2008~2012)로 나누어 수립,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지적장애의 5개 영역이었던 장애범주는 2000년 1차적으로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포함되고 뇌병변장애가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어 총 10종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에는 2단계로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류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이 포함되었으며 3단계 장애범주 확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가 진행되었다.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크게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보육지원 및 기타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신현섭, 2008). 생활안정지원의 하나로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에 4만 5천원이던 부양수당은 2006년에는 7만원으로 인상되었

다. 2007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수당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지급액 역시 중증장애의 기초수급자 가정은 20만원, 차상위계층의 가정은 15만원 그리고 경증장애의 경우는 모두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장애아동 의료지원의 경우 그동안 의료급여법에 의해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에 한해 장애인 의료지원비가 제공되다가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장애 아동 보장구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되어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및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와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 후두 등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 감면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18세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및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실시되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1995년 통합보육시설과 전담보육시설을 지정하여 0-12세 아동이 입소할 수 있게 하였고 1996년 장애아동 5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하였다. 1997년부터 전담보육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장애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와 취사부 1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었다. 2003년은 장애아 무상보육이라는 획기적인 지원이 시작된 해로 0-5세의 장애인 등록증 소지 아동 및 입학유예한 만 7세 아동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 0-2세의 영아는 장애인 등록증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03).

특수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 만

5세-19세 아동 중 약 200만 명이 특수아동으로 추산되었으나 약 198만명은 방치되어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이 시급하였으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진흥을 제도화하기 위해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최초로 차별금지 법리를 도입하였다(김미옥·김용득·이선우, 2006).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여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총 9차례의 개정 중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이었으므로 장애영·유아 및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에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포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의무교육 연한 확대, 장애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와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통합교육의 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고등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여 2010년에 만 5세 이상 장애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2011년 만 4세 이상, 그리

고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장애 유아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일정한 교육적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이용을 의무교육 이행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유·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 4명·6명·6명·7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인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로서 2009년부터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 등 치료 지원도 연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오늘날의 장애아동의 현황과 교육, 복지정책 및 제도는 장애아동의 문제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문제화 시키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 연구쟁점

장애아동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관심의 향배 뿐 아니라 장애 정책과 실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동향을 보여준다. 국회도서관에서 2009년 5월 초에 1980년-2009년까지 ‘장애아동’, ‘장애유아’, ‘특수아동’ 및 ‘장애학생’이라는 검색어로 서명(full title)을 검색하였을 때 지난 30년 동안 학위논문 507편, 학술지 논문 2,093편으로 총 2,6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용어로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관련 논문은 약 5,500개에 달하였다. 서명 검색을 주로 하되 주제에 따라 키워드 검색을 추가하

여 장애아동에 관한 연구를 크게 발달·교육과 복지, 가족의 발달과 복지, 그리고 교육·복지환경과 정책영역으로 나누어 동향을 살펴본 후 연구 쟁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장애아동의 발달·교육과 복지

이 영역은 발달·교육과 복지 두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먼저 발달·교육영역은 다시 장애유형과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연구 양으로 볼 때, 정신지체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애영역이었는데, 1980년대에 주로 언어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결정기술(추연구, 2007), 신체훈련과 혈중 글로불린 농도(김권섭·류호상·권영우, 2007) 등 그들의 일상생활과 의학적 특성에 관해서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감각장애는 시각장애에 관한 연구가 청각장애 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감각장애 극복의 치료적, 기술적 방법론(박국영, 2008; 최성규, 2008)이 최근 부각되고 있었다. 정서·행동장애는 자폐아동 연구(김현순, 1985)가 첫 연구인 반면 ADHD의 경우는 이경숙 외(1996)의 연구가 처음으로 발표되어 연구 역사가 짧았다. 학습장애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중반 무렵부터 시작되어 점차 장애영역이 세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학습 콘텐츠의 개발(최은주, 2009) 등 지도방법론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받아왔던 지체부자유는 1980년대에는 교육환경과 실태, 교육방법, 체육수업 활성화, 직업의식 등 기초연구가 많았으나 2000년 무렵부터 ICT 활용 교육(임장현, 2004; 전현숙, 2008), 웹기반 치료(박재우, 2002) 및 심리 치료(임지향, 2008; 최은영·이은혜·장현정, 2007)를 통한 신체적,

심리적 재활 연구가 상당수 수행되었다. 또한 언어장애는 1980년대의 진단, 치료 및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이 1990년대 후반에 약물사용의 효과(최홍식, 1998)나 뇌의 구조적 특성(이정섭·강민희·홍강의, 1999) 등 의학적 연구가 시도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에는 연구가 크게 증가하여 애니메이션 활용(이우진·강수균, 2004), 형제 참여(황보명, 2003), 총체적 언어(박선희·이규식, 2004)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가 연구되었다. 조음장애는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인데 다문화환경으로 인한 조음장애(황상심·김화수, 2008) 등, 최근의 사회적 현상도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발달·교육영역의 주요 주제를 교수·학습, 통합교육 및 장애진단과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교수·학습 관련 주제는 1980년대에는 ‘특수아동’의 학습 능력, 특징 및 지도방법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다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장애별 학습지도 방법이 탐색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방법론으로 활동 중심의 자연적 중재(정계숙, 1994; 이소현, 2003)가 소개되었고, 상위인지학습 훈련(박수옥, 2002; 신혜영, 2006), 총체적 언어학습(강창욱·임정미, 2003; 이상훈·최은옥, 2000), 또래교수(이나영·박은혜, 2001; 장수경·안성우·백유순, 2003), 자기교수 훈련(임수진, 2003) 등 장애아동의 특징에 보다 부합하는 학습방법을 찾는 연구는 2000년대에 많이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제공자로서 교사에 관한 연구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정계숙·고지민, 2001), 교사간 역할 수행과 갈등(송영미·조광순, 2008), 아동-교사 간 애착 안정성(김진주, 2005), 직무스트레스(유수옥·임명환, 2007) 등 아동의 발달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사의 심리적 특성이나

자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는 추세이다.

둘째, 통합교육 관련 주제는 1980년대 말 유아기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들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많은 연구도 통합교육 현황이나 실천을 위한 또래수용과 태도 및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었고 2000년대에도 일반부모, 교사 및 행정가 등의 태도와 인식 연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반면 통합교육 장면에서의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유아 통합교육의 연구 동향(정계숙·김경숙, 2004)에서도 지적된 유아교육 부문 뿐 아니라 초등교육 부문에서도 드문 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등교육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여 아동기 이후의 통합교육은 교육자와 연구자의 관심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진단과 평가에 관한 주제는 1990년대 말까지 주로 진단검사의 활용과 평가지침 등에 관한 기초연구가 많았던 시기에 황순택(1999)이 진단도구의 개발에 매진한 점이 두드러진다. 2000년대에는 장애유아 진단도구의 개발이 시작되어 0~3세 영유아를 위한 조기진단 척도(장미경, 2005)도 연구되었고, 언어장애, 학습장애, 발달장애, ADHD 및 시·청각장애 선별 및 진단 도구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평가 부문에 있어서는 1980년대에 ‘특수아동’의 심리학적 평가와 조기진단 방법의 이해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역동적 평가에 기반한 중재학습(강영심, 1996)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장애유형별로 총괄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웹을 이용한 총괄평가 체계(이민호·이원령·이상복 외, 2005)도 시도되었다.

넷째, 치료 및 상담 관련 주제는 1990년대에 와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언어와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한 언어치료를 제외하면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문제를 돕는 놀이치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무렵부터 아동의 장애 유형에 따라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작업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이 적용된 치료 유형은 놀이치료이며 ADHD아동을 위한 약물치료와 부모훈련 병합치료(김세실·안동현·이양희, 1998)도 연구되었다. 그러나 중등 장애학생을 위한 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정도가 적용되었다.

2. 가족의 발달과 복지

가족의 발달과 복지에 관한 주제는 주로 전체 가족보다는 어머니가 주 대상이었고, 가족발달 관련 내용이 가족복지에 관한 내용 보다 훨씬 많이 다루어졌다. 가족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장관식, 1986)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1990년대 이후 장애아동에 대한 지각, 양육 관련 갈등과 스트레스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자녀 발달과 부모역할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많이 연구되었다. 2000년대에는 부모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여광웅·송종원, 2005; 정보인·유은영, 2003), 부모-자녀 놀이치료(김양순, 2002; 이숙·이현정, 2006) 등 상담 관련 연구와 함께 부모의 정신건강, 부부간 결혼만족도, 권리 의식 등 부모의 삶의 질 관련 주제도 조금씩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 및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여 보다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유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경우보다 늦은 1990년대 중반 경에 시작되었으나 연구주제는 유사했는데, 교사-어머니 간 유아발달과 행동 평가의 차이(이지연, 1993; 정계숙·구강민, 2009)에 관한 연구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와 관련하여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등 장애학생 자녀의 진로(이중운·나운환·정승원, 2006), 직업(국립특수교육원, 2006) 및 학교-가족 간 협력(권희연·전병운, 2009)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지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족복지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비장애 형제의 복지와 관련하여 약 50편 정도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비장애 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 자아개념, 문제행동, 우울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행동적 문제의 교육(전혜인·박은혜, 1998)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유도하여 2000년대 이후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부담감 감소와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조윤주, 2008)의 효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장애아동 가족 전체의 복지와 관련된 연구는 더욱 저조한데, 가족의 빈곤과 관련하여 삶의 질(정영숙, 2002)과 복지정책 방안(정혜윤, 2007), 가족 지원 실태와 요구(구신실·박재국·조영석, 2009; 김혜경, 2004),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방안(남연희, 2002)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부모교육이나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넘어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천적 연구는 거의 없어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어용숙·안혜경, 2007)도 그 내용은 부모교육에 국한되었다. 교육·치료 서비스를 비롯한 자기 옹호 및 권리 주장에 관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이제화·이상복, 2007)과 달리 아직 우리는 어머니 중심의 교육·치료적 서비스에 가족 지원과 복지가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 및 복지 정책

우리 사회의 교육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통합교육 정책(김남순, 2005), 특수교육 정책의 효과(정동렬, 2005)와 영향 요인(김영태, 2006), 한국 특수교육 정책의 변천(이석진·김삼섭, 2004) 및 새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과 방향(황인철, 2008) 등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 관련법에 관한 주제는 대부분 고용과 취업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다루어졌고 아동 관련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는 드문데, 특히 가족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소수의 연구(허경하, 2002; 정민정, 2007)가 있었다. 점진적인 복지정책의 개선에 따라 복지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복지 서비스 실태조사(가현자, 1999)와 장애청소년의 복지 증진 방안 연구(최성희, 1997) 등을 시작으로 복지시설 만족도(박민수, 2002), 장애아 인권의 관점에서 본 통합교육(주혜영, 2005), 장애아를 위한 학교사회 복지 제도화(박용원, 2000) 등이 그 예이지만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복지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인식 및 욕구의 실태에 초점을 두었다.

지난 30년간의 장애아동의 연구 동향을 종합하면 양적 증가, 내용의 다양성, 주제의 세분화 및 기초학문과의 연계로 요약된다. 전반적으로 장애아동의 발달과 특징 이해에서부터 점차 그들의 구체적인 기능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치료 방법의 효과 검증으로 주제가 옮겨지면서, 포스트모던 사조를 반영하듯 다양한 아동 개개인의 학습권 및 심리적 복지가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

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관한 연구의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교육과 발달에 초점을 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초, 중등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아동이 흔히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생활 현상과 삶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치료가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 등, 비장애아동의 행복에 대해서처럼 장애아동의 행복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많은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으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장애아동의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거기반중재(evidence-based intervention)가 강화될 수 있도록 메타 분석연구(Kavale, 2001)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사회적, 학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통합교육은 기초연구 수준에서의 연구가 많았다. 특히 가장 통합교육의 의미가 크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의무화된 유아통합교육은 2000년대에도 기반 조성을 위한 태도와 인식 연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저변의 불충분한 합의를 반증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충분치 못한 연구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질적 실천의 현실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실천 문제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재아동은 그들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할 때 조기 발견에서부터 교육까지 법적 보장을 통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재 유아의 교육은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 맡겨져 있다. 영재유아를 위한 조기 지원 체계의 중요성과

교육방법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가족의 복지나 사회정책은 아동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특히, 가족발달과 복지 연구는 거의 어머니나 비장애 형제에 제한되었으므로 전체 가족의 삶의 질과 복지의 실태 및 그 향상 방안 등에 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아동과 가족의 생활양식(life style)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는 그들의 욕구와 생활 면모를 보다 잘 반영한 장기적인 교육 및 복지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아동의 교육 및 복지환경에 관한 사회, 국가적 정책은 다른 영역에 비해 연구물이 빈약한 편이었다. 이는 미시적 교육 실천론에 비해 장애아동의 장기적인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음을 말해준다. 교육 및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행정가와 일반인의 인식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제도 활동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육 및 복지정책의 제도적 측면이 다양한 장애조건과 생활 조건을 가진 아동과 가족의 발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장, 단기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1.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실제적 이슈

헌법 3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은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어 왔다.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관련된 최초의 법령인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1984년에는 특수교육 7개년 계획(1985~1991년)을 착수하여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내실화는 물론, 전문요원의 양성과 수급, 직업교육의 부실 등 특수교육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윤점룡, 1989). 교육법에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규정은 있었으나 권리와 의무로서의 특수교육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장애아동은 교육 접근기회에서부터 그 권리를 심하게 제약 당하고 있었는데, 1990년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취학률은 전체 19.7%에 불과하며, 의무무상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률도 각각 28.9%와 21.5%에 불과하였다(이혜원, 1992). 이는 특수교육기회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아동이 겪었던 교육적 불평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여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지만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보고에 의하면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학생이 전체 장애학생의 40%에 육박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장애학생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매체/편의시설/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등)등 복지권(관련 서비스)만 제공되어도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강경희·황정보·이선재·안병주·김청아, 2007) 제한점도 있었다.

2006년 UN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 및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2007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 권익 신장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더욱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4. 30)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인 교육권을 장애인들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대상 범주에 발달지체가 포함되어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학습 보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과 같은 관련서비스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별행위에 벌칙 부과로 차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높였다.

교육권의 보장이란 인권의 기본 개념인 평등과 참여, 인간존엄의 측면이 교육현장에 적용된 것이지만(주혜영, 20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아동의 교육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구체화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되어야 교육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단 한 개의 조항만 있을 뿐이며(제18조)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교육법에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에 불리한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 교육법들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강경희 외, 2007).

교육현장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의 편견과 무관심,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박승희, 1999). 특히 일반학교에 완전통합

되어있는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사각 지대에 있는 실정(국립특수교육원, 2003)이므로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아동과 함께 가족, 특히 부모의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부양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보호와 직접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부모교육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아동 부모의 교육권 보장은 그들 자녀의 교육권과 복지권 증진 및 부모의 복지권 증진으로 그 효과가 확대 재생산되는 의미가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가 그 핵심이며 부모와 교사 등은 그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지는 상호 협력관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복지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실제적 이슈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권은 사회적 시민권으로 보편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성도 보장해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1999년 및 2007년에 각각 전면 개정되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로 개별적 지원 및 서비스 중심이며, 특히 가족을 위한 명확하고 다양한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동가족은 아동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통합적 발달과 복지 증진이라는 장기목표를 위해 다양한 장애아동 가족복지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제도의 실

태 및 문제점을 시대별로 보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시기이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및 정책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으며 가족을 위한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였다(정민정, 2007). 1980년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며 1990년대는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한 시기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c). 1991년부터 시작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와 1992년부터 실시된 생후 2개월에서 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 예방접종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한 예이다. 이처럼 장애발생 이후 아동 및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애 예방적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복지 예산도 1992년 이후 매년 증액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

가족복지정책은 2000년 이후부터는 보다 더 확대되고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신현섭, 2008). 먼저, 생활안정지원으로는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생계비 지원과 장애아부양수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만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심미영·염동문, 2008). 앞으로 수급대상을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연금제도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연 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5년 간격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욕구를 반영하게 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2급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해오다가 20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둔 차상위계층 가정으로 확대된 의료지원비는 소득수준만을 수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 보장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급여가 확대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는 보장구 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내구연한은 주로 5년이며 상환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교적 성장이 빠른 어린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이 보장구를 5년 이전에 교체할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2007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및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사업 중 최초로 영리기관에 서비스 공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농·산·어촌 등 거리상 서비스 수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가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윤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치료사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서비스 이용단가를 높여 이용횟수를 줄이는 등 가족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김기룡, 2009). 보다 많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환경을 구축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요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여러 시설 중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복지관이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은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나 가족의 요구에 비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허경하, 2002). 장애아동 보육지원으로는 장애아 및 중증 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같은 특수보육시설과 함께 통합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보육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영역별 발달 지원 및 잔존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질적인 보육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보육시설들이 장애영유아 수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어 거주지에 인접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장애아 가족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 복지는 교육 및 복지 주체인 장애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 및 복지정책의 수립과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앞서 현행 복지정책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양질의 교육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 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현자(1999). 한국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장애인 복지시설의 서비스의 만족도와 필요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강경희 · 황정보 · 이선재 · 안병주 · 김청아(2007). 복지권으로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연구, 14(2), 123-146.

강영심(1996). Feuerstein의 중재학습경험(MLE) 수준에 따른 경도장애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특수교육논집, 13(2), 129-148.
 강창욱 · 임정미(2003). S-D-S 모형을 적용한 총체적 언어학습법이 읽기 학습부진아동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1), 73-99.
 교육과학기술부(200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08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특수교육통계.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구신실 · 박재국 · 조영석(2009). 뇌성마비유아 가족지원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52(1), 377-396.
 국립특수교육원(2003). 특수학급 운영 실태 분석 연구 (등록번호11-1340458-000017-01). 서울 :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편(2006). 발달장애학생의 중등교육이후 직업교육 : 원광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특수교육, 13(5), 25-28.
 국립특수교육원(2008). 2008 특수교육실태조사(등록번호 11-1341119-000004-01). 서울 : 국립특수교육원.
 권희연 · 전병운(2009). 학교-가족간 협력에 대한 장애 학생 학부모의 인식.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52(1), 259-286.
 김권섭 · 류호상 · 권영우(2007). 정신지체인의 신체훈련이 최대화 훈련시 혈중 면역글로불린 농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18(3), 39-45.
 김기룡(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마우처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복지동향, 19-22.
 김남순(2005). 한국 통합교육 평가정책 방향. 지적장애연구, 7, 15-33.
 김미옥 · 김용득 · 이선우(2006). 장애와 사회복지. 서울 : 학지사.
 김세실 · 안동현 · 이양희(1998).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 아동에 대한 약물-부모훈련 병합치료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37(4), 683-699.
 김양순(2002).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사례연구 : 발달장애 아동과 형제자매

- 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5(2), 3-13.
- 김영태(2006). 특수교육 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윤정(1997).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진주(2005). 장애유형에 따른 아동과 교사간의 애착 안정성과 장애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순(1985). 자폐아동 치료교육의 이론적 모형. *한국문화연구원논집*, 45, 183-212.
- 김혜경(2004).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발달지체유아 부모의 지원요구조사. *지적장애연구*, 6, 77-93.
- 남연희(2002). 장애아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16, 121-143.
- 박국영(2008). 시각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모음집.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민수(2002). 장애인 복지시설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선희 · 이규식(2004). 총체적 언어프로그램이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3(2), 143-158.
- 박수옥(2002). 상위인지 학습전략훈련이 읽기 지체 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승희(1999).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적 수정의 개념과 실행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4(2), 29-71.
- 박용원(2000). 초등학교 통합교육 내 장애아동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복지 제도화 논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재우(2002). 웹기반 학습에서 자료제시유형이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 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a). *장애인 현황*. [http : //www.index.go.kr](http://www.index.go.kr)에서 2009년 7월 31일 인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b).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c). *장애인정책의 변화*. www.mw.go.kr에서 2009년 7월 30일 인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송영미 · 조광순(2008). 장애유아 통합교육 · 보육기관 교사의 역할수행과 갈등. *유아특수교육연구*, 8(3), 67-87.
- 심미연 · 염동문(2008).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가족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양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3(2), 111-135.
- 신현석(2008). *장애인 복지론*. 서울 : 공동체.
- 신혜영(2006). 상위인지학습훈련이 수학 학습장애아의 문장제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어용숙 · 안혜경(2007).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중복 · 지체부자유아 교육*, 49, 99-110.
- 여광웅 · 송종원(2005).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상담모형 개발을 위한 특수교사와 학부모 상담욕구 분석. *발달장애학회지*, 9(1), 1-16.
- 유수옥 · 임명환(2007). 장애전담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29-345.
- 윤점룡(1989). 우리나라 특수교육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전주우석대학교논문집*, 14, 251-271.
- 이경숙 · 유윤정 · 안동현 · 신의진(1996). ADHD 아동과 외면화 증후를 공존질환으로 갖는 ADHD 아동간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7(2), 203-212.
- 이나영 · 박은혜(2001). 장애 중학생의 사회과 통합교육에서의 또래교수 활용. *교육과정평가연구*, 4(1), 79-91.
- 이민호 · 이원령 · 이상복 · 신윤희 · 서경희 · 변찬석 · 전현선 · 김춘희(2005). 웹을 이용한 장애 아동의 사회화 촉진 총괄체계 구축 : Homi.Info 기록체계를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분석과 평가. *정서 · 행동장애연구*, 21(4), 189-212.
- 이상훈 · 최은옥(2000). 총체적 언어학습 프로그램이

- 학습장애 아동의 언어학습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서·학습장애연구*, 16(1), 97-115.
- 이석진·김삼섭(2004). 한국특수교육 행정조직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11(2), 5-26.
- 이소현(2003). 활동-중심의 통합유치원 교육과정이 장애 유아의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7(4), 97-122.
- 이숙·이현정(2006). 반응성 애착장애유아에 대한 부모놀이치료 효과. *놀이치료연구*, 10(1), 35-48
- 이우진·강수균(2004). 애니메이션 활용이 언어장애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재활과학연구*, 22(1), 55-69.
- 이정섭·강민희·홍강의(1999). 자폐적 장애 및 발달적 언어장애 환아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뇌량, 시상, 소뇌 및 뇌교에 대한 구조적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219-226.
- 이종운·나운환·정승원(2006). 지각된 부모의 양육 및 진로지도 태도가 청각장애 학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재활과학연구*, 45(4), 273-300
- 이제화·이상복(2007).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분석 : 1997년에서 2007년까지 국내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29-52.
- 이지연(1993). 장애유아의 발달평가에 대한 특수교사(치료사)와 어머니의 평가차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원(1992).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수진(2003). 자기교사 전략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나뭇셈 과제 성취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장현(2004). ICT활용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활용능력에 관한 연구 : 서울시에 있는 지체부자유 학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향(2008). 미술치료가 뇌성마비아동의 소근육 발달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복지체부자유교육*, 51(2), 141-155.
- 양민옥(2008). ADHD 아동에 대한 통합치료와 약물치료 간의 효과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관식(1986). 장애아동 어머니가 갖는 문제점과 사회사업 개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심으로. 숭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수경·안성우·백유순(2003). 상급학생 또래교수가 청각장애 학생의 진로교과과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8(1), 315-333.
- 장미경(2005). 0-3세 영유아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 조기진단 척도 제작 연구. *아동학회지*, 26(1), 47-59.
- 전현숙(2008). 지체부자유학교 ICT 활용 교육의 문제점 및 교사 요구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인·박은혜(1998).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형제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27, 129-144.
- 정계숙(1994). 유아교육현장의 특수 요구가 있는 유아를 위한 한 지도 방안 : 활동에 기초한 중재의 적용. *유아교육논집*, 4(1), 71-94.
- 정계숙·고지민(2001).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른 장애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 연구. *유아교육논집*, 10(1), 211-237.
- 정계숙·구강민(2009).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특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간 평정 일치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317-338.
- 정계숙·김경숙(2004).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24(7), 181-204.
- 정동렬(2005). 특수교육 정책의 효과 분석 : 발달장애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민정(2007). 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1), 37-59.
- 정보인·유은영(2003). 발달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재활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한직업치료학회지*, 11(1), 19-31.

- 정영숙(2002).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2, 279-300.
- 정혜윤(2007).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실태와 복지정책 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윤주(2008).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159-180.
- 조추용 · 오정옥 · 한성심 · 이채식(2006). *가족복지론*. 서울 : 창지사.
- 주혜영(2005).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통합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추연구(2007). 정신지체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결정 기술에서 자기규칙의 촉진 방안. *발달장애연구*, 11(1), 1-21.
- 최성규(2008). 소음환경에서 착용한 두 개 마이크로폰 배열 보청기와 세개 마이크로폰 배열 보청기가 청각장애아동의 어음 변별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3(2), 199-215.
- 최성희(1997).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재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은주(2009). 학습장애아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상호작용성 설계 전략.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은영 · 이은혜 · 장현정(2007). 지체부자유 아동의 심리적 재활을 위한 미술치료. *증복 · 지체부자유아 교육*, 49, 261-276.
- 최홍식(1998). 보틀리눔독소 주입에 의한 음성장애 및 언어장애의 치료. *음성과학*, 3, 5-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정책보고서 2006-61). 서울 : 국립특수교육원.
- 허경하(2002). 장애 영유아에 대한 가족지원 정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보명(2003). 형제 참여 언어중재가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음성과학*, 10(3), 65-78.
- 황상심 · 김화수(2008). 다문화환경 조음음운장애아동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변동 패턴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4), 329-348.
- 황순택 · 정재홍 · 조연구 · 오동렬 · 김창현 · 양병환(1999). 성격장애 진단준거 목록의 타당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18, 167-174.
- 황인철(2008). 새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과 방향. *현장특수교육*, 15(2), 36-39.
- Kavale, K. A. (2001). Meta-analysis : A primer. *Exceptionality*, 9, 177-183.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0). *Special needs education : Statistics and indicators*.

2009년 8월 22일 투고, 2009년 10월 28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